



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

'24. 11. 18.(월) 13:30~
생활문화센터

장보고대사 제1183주기 추모다례제 헌사



 **완 도 군 의 회**

헌 사

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, 내외 귀빈 여러분!

완도군의회 의장 김양훈입니다.

깊어가는 가을,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제1183주기를 맞아 온 군민과 함께 추모 다례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**김현철** 부군수님과 **이철** 도의회 부의장님, **신의준** 도의원님,

그리고 **박성규** 부의장님, **지민**, **박재선**, **박병수**, **조인호**, **최정욱**, **허궁희**, **조영식**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,

오늘 다례제를 준비하여 주신 사단법인 장보고 연구회 **박봉욱**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존경하는 군민 여러분!

오늘 우리는 장보고 대사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, 그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

장보고 대사는 완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해양 문화를 이끌었던 해상왕이자,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세계에 드높인 선구자였습니다.

하지만 오늘날 완도는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 정신과 리더십이 필요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

우리 후손들은 청해진 천년의 혼과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이어 받아 해양 잠재력을 발현시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겠습니다.

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다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단단하게 하고, 거침없이 속속 뻗어가는 해양문화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.

완도군의회는 장보고 대사의 유산을 보존하며, 이를 바탕으로 완도가 더 큰 가능성과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다시 한 번, 대사를 추앙하는 마음으로 다례제를 봉행하고 이러한 염원이 온 군민과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며,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